

# 심층분석보고서

E1-해외영업

2026.05.10

### 심층분석보고서: E1 해외영업 직무

#### 1장: 산업(섹터) 분석

##### 1-1. 글로벌 LPG 시장 구조와 'NGL 우위'의 의미

글로벌 LPG 시장은 2024년 약 1,231억 달러에서 2025년 1,550억~1,6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Mordor Intelligence 추정 기준 2026~2031년 연평균 4.6% 성장이 예상됩니다. Grand View Research는 2033년까지 1,720억 달러 도달을 전망하였고,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더 높은 1,762억 달러 추정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사이의 추정 격차가 200억 달러를 넘는 이유는 LPG 정의 자체가 프로판 단일 시장으로 보느냐, 부탄·이소부탄·MTBE 원료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 거시 그림을 그릴 때는 한 기관의 수치를 단정적으로 인용하기보다, 동일 출처를 일관되게 추적하면서 트렌드를 읽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LPG는 두 가지 경로로 공급됩니다. 첫째, 천연가스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는 NGL(Natural Gas Liquids), 둘째, 정유 공정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정제 LPG입니다. 2025년 기준 NGL 비중이 60.45%로 압도적이며, 이는 북미 셰일가스 생산 증가와 중동 동반가스(associated gas) 프로젝트가 한계비용을 낮은 수준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노스필드 확장으로 카타르 자국 LPG 생산은 2024년 1,070만 톤에서 2030년 1,760만 톤으로 늘어나고, ADNOC는 3개 가스 프로그램으로 연 250만 톤을 추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LPG 가격의 하방 압력은 천연가스 시장과 동조화되어 있으며, 정유 시장(WTI·Dubai 유가)보다 헨리허브·JKM 같은 가스 지표와의 상관도가 점차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공급 구조는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산유국 NOC가 발표하는 공식 가격(CP)이 시장 전체를 좌우했다면, NGL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 미드스트림 사업자(Enterprise·Targa·ONEOK)와 글로벌 트레이더(Vitol·Trafigura·Glencore)가 발휘하는 가격 결정력이 함께 커졌습니다. E1과 같은 동북아 수입사가 단일 산유국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2. 미국 셰일가스 LPG 수출이 재편한 무역 패턴

미국은 2022년 기준 일평균 180만 배럴의 LPG, 그중에서도 프로판을 중심으로 수출하며 코로나 이전 대비 33% 늘어난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중국·일본·한국이 최대 수입국이며, 2025년 11월 미국에서 유럽향 LPG 수입은 78만 5,000톤으로 2014년 이후 3번째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분쟁 영향으로 동향(東向) 카고가 줄어들고 유럽 잉여 공급이 늘어나는 흐름은, 그동안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해 오던 한국·일본 입장에서는 도입선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2014년 E1이 미국 휴스턴에 500억 원을 출자하여 E1 America LLC를 설립한 것은 이 셰일 시대의 도입선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휴스턴은 미국 LPG 수출 인프라(Enterprise Houston Ship Channel·Targa Galena Park·Energy Transfer Marcus Hook)와 가까운 입지로, 카고 노미네이션과 부두 슬롯 협상이 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2월 ONEOK이 텍사스시티에 일 40만 배럴 규모 수출터미널 계약을 발표하면서 미국 측 수출 인프라는 한층 두꺼워졌고, 이는 E1과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같은 수입사 입장에서 차익거래(arbitrage)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수는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입니다. 미국 멕시코만에서 출발한 VLGC가 일본·한국·중국에 이르는 노선은 파나마운하 통과 여부에 따라 항해 일수와 운임이 달라지며, 2023~2024년 가뭄 영향으로 통과 슬롯 경매가 일상화되면서 운임 변동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해외영업 담당자는 매주 파나마운하 통과 슬롯 가격, 우회 항로(희망봉·수에즈) 비용, VLGC 차터 가격을 종합해 카고의 손익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1-3. 가격 결정 메커니즘 - Saudi CP·Mont Belvieu·FEI의 삼각관계

국제 LPG 가격은 크게 세 가지 벤치마크로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Saudi CP(Contract Price)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매월 말 발표하는 아시아항 기준가로, 2025년 12월 CP는 프로판 톤당 495달러(전월 대비 +20달러), 부탄 톤당 485달러(+25달러)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CP는 프로판 545달러·부탄 540달러로 추가 인상되어 동절기 난방 수요와 강제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CP는 중동산 카고 가격뿐 아니라 한국·일본·인도 등 아시아 시장 전체의 도매 시세를 좌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두 번째 벤치마크는 미국 멕시코만의 Mont Belvieu LST(Lone Star) 프로판 가격입니다. 2025년 11월 평균 64.72¢/USG, 환산 약 345달러/톤으로 미국 내 수급 상황을 반영합니다. Mont Belvieu는 미국 세일가스 LPG의 사실상 표준 가격이며, EPC(Enterprise Products Channel) 가격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거래됩니다. 한국 수입사 입장에서는 Mont Belvieu 가격에 미국 출하 비용, VLGC 운임, 파나마운하 통과료, 한국 도착 후 하역·검수 비용을 더한 'landed cost'를 산출해 사우디 CP와 비교하게 됩니다. landed cost가 CP보다 충분히 낮으면 미국 카고를 늘리고, 반대면 중동 비중을 늘리는 식의 의사결정이 매월 반복됩니다.

세 번째 벤치마크는 아시아 도착도(CFR) 시황을 나타내는 Argus Far East Index(FEI)와 NWE(북서유럽) ARA 가격, 그리고 VLGC 운임지수인 Baltic Index입니다. FEI는 Argus Media가 발행하는 아시아 인도가격 지표이며, 페이퍼 시장(스왑·옵션)에서 헷지 도구로 활용됩니다. 국내 SK가스·E1은 매월 말 CP·환율·운송비·재고평가를 종합해 익월 가정상업용·산업용·수송용 공급가격을 발표합니다. 2025년 12월에는 CP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선택하였고, 2026년 1월부터 인상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공급가는 단기 시황뿐 아니라 정부 물가 관리 정책, 도시가스·전기 요금과의 상대 가격 정책, 자동차용 부탄 수요까지 고려한 종합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 1-4. 국내 LPG 수요 트렌드 - 부탄 정체, 프로판·트럭·석화의 반등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LPG 자동차는 183만 3,000대로 2010년 246만 대 정점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1월 LPG 신차 등록은 14만 8,566대로 전년 6만 6,651대 대비 122.9% 급증하며 턱어라운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LPG 1톤 트럭(현대 포터2 5만 3,342대, 기아 봉고3 3만 1,751대)이 전체 LPG 신차의 57.3%를 차지하면서, 디젤 1톤 트럭의 친환경 대체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디젤 1톤 트럭의 신규 등록을 사실상 막은 환경 규제(2023년 1월 발효된 '디젤 신규 1톤 트럭 판매 종료')의 반사이익이며, 동시에 자영업·소상공인 수요와 결합되면서 부탄(자동차용)·프로판(난방·취사용) 수요 모두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LPG 이용·보급 시책'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국내 LPG 수요는 1,111만 톤으로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2020년 1,019만 톤 대비 소폭 늘어나며, 수송용 비중은 21.4%로 4.6%p 줄어드는 반면 석유화학·산업용 비중은 5.8%p 늘어나 63.5%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한국 LPG 시장은 'B2C 가정·자동차'에서 'B2B 석유화학·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구조 변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LPG 수요 증가는 PDH(프로판탈수소화) 설비의 잇따른 신증설과 직결됩니다. SK에너지(연 60만 톤 프로필렌), HD현대케미칼, 효성, 롯데케미칼 등이 PDH 설비를 운영하거나 추가 하면서 프로판을 원료로 쓰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물량은 일반 가정·산업용 LPG와는 다른 가격 협상 메커니즘(연간 텀 + 가격공식)을 갖습니다. 해외영업 담당자가 PDH 운영사와 별도의 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 1-5. 글로벌 트레이더 지형과 LPG 가치사슬

LPG 가치사슬은 산유국 NOC(Aramco·ADNOC·KPC·Qatargas) 또는 미국 미드스트림(Enterprise·Targa·ONEOK)에서 출발해 글로벌 트레이더(Vitol·Trafigura·Glencore·Petredec·Geogas·Naftomar·Mercuria), VLGC 해상운송(BW LPG 53척, Dorian LPG, Avance Gas, KSS해운 16척, 현대글로벌비스), 수입국 터미널(E1·SK가스), 도매(충전소·산업체·석화사), 소매(가정·상업·수송)로 이어집니다.

Vitol은 2024년 일 730만 배럴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독립 에너지 트레이더이며 2024년에만 파트너에게 106억 달러를 배당했습니다. Trafigura는 북미 가스전부터 글로벌 시장까지 있는 LPG 철도·해상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이들 트레이더는 자체 선대(船隊)를 보유하면서 산유국·수입사 사이에서 카고 매매·운임 차익을 동시에 노립니다. E1과 같은 한국 수입사는 자체 도입(텀 계약 + 스팟) 외에도 Vitol·Trafigura와의 거래로 부족 물량을 보충하거나 잉여 카고를 매각하는 식으로 트레이더와 일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합니다.

해상운송 측면에서 2025년 VLGC 스팟 운임은 사우디-일본 노선 일 7만 달러, 휴스턴-일본 6만 6,000달러까지 상승하였고, 2025년 말 미·중 휴전 분위기 속에서 비(非)친환경 VLGC 운임은 일 5만 5,000달러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VLGC 1척의 표준 화물량은 약 4만 4,000톤(또는 LPG 8만 6,000m<sup>3</sup>)이며, 라스타누라(사우디)에서 치바(일본)까지 라운드트립 약 45일 항해를 기준으로 운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운임이 일 1만 달러 변동하면 카고 1척당 약 45만 달러, 한화 약 6억 원의 손익 변동이 일어나므로, 운임 헷지(BLPG 페이퍼 등)가 트레이딩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VLGC 오더북 측면에서는 IMO 환경규제(EEXI·CII) 강화로 LPG·암모니아 듀얼퓨얼 VLGC 발주가 늘어나, 2025년 1분기 글로벌 VLGC 오더북 109척(현 선대의 27%)이 모두 듀얼퓨얼이 되었습니다. 향후 5~10년 사이 VLGC 선대가 친환경 사양으로 빠르게 교체된다는 의미이며, 한국 수입사의 운송 파트너 선정과 장기 차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1-6. 친환경 전환·수소·도시가스 대비 가격 경쟁력

LPG는 휘발유·경유 대비 미세먼지·CO<sub>2</sub> 배출이 낮아 'Bridge Fuel(과도기 연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EU·미국에서는 재생 LPG(rLPG)와 rDME(재생 디메틸에테르) 시장이 형성 중입니다. WLPGA는 2025년까지 rLPG 가용량이 3배로 확대될 전망을 제시하였고, 한국에서도 LPG 충전소 부지를 활용한 수소 복합충전소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소 단가가 1kg당 9,900원 수준으로 여전히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비싸고 튜브트레일러 운영 부담이 남아 있어, LPG 충전소 부지를 활용한 복합충전소가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도시가스와의 상대 가격 경쟁력도 LPG 산업의 향후 5년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도시가스(LNG 기반)는 산업용·발전용 비중이 매우 높아 LNG 도입 단가에 따라 가격이 출렁이고, 동절기 LNG 현물 가격이 급등하면 LPG 대비 가격 우위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LNG가 안정 구간에 진입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농어촌·도서지역)을 제외한 도시 LPG 수요는 정체할 수 있습니다. E1·SK가스는 이러한 가격 변동을 분기 단위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자동차용·가정상업용·산업용 비중을 조정합니다.

이상의 산업 거시 그림을 종합하면, LPG 트레이딩 도메인은 사우디 CP·미국 Mont Belvieu·아시아 FEI·유럽 NWE 4대 벤치마크 사이의 스프레드와 VLGC 운임이 동시에 변동하는 다중 가격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내 시장은 부탄(자동차) 정체와 프로판(난방·트럭·석화) 반등이 공존하는 균형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왜 지금 LPG 트레이딩이 도전적이며 매력적인가"라는 산업 정의를 한 줄 메시지로 명확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국 세일발 공급 다변화로 도입선 협상 레버리지가 커지는 동시에, Saudi CP·FEI·Mont Belvieu 스프레드와 VLGC 운임이 함께 움직이는 다중 변수 체계가 트레이더의 모델링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는 점, 부탄 수요 정체와 프로판·석화·1톤 트럭 수요 반등이 공존하는 재편 국면이라는 점을 산업 거시 메시지로 정리하는 것이 도메인 이해도의 출발점입니다.

---

##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 2-1. 시장 점유율의 정량 비교

한국석유공사 통계 기준 국내 LPG 내수시장은 SK가스 약 40%, E1 25~34%, 정유 4사(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합산 약 25%, 석유화학사 자체 수입 약 1~2% 구조입니다. 2022년 1분기에는 SK가스 40.6%·E1 34.2%로 격차가 좁혀진 시기도 있었으나,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SK가스 39.2%로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1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2025년 12월 가스 유틸리티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은 1위 한국가스공사, 2위 SK가스, 3위 E1으로 양강 구도가 일관됩니다.

점유율 격차의 배경에는 SK가스의 정유 부문(SK이노베이션 계열) 시너지, 석유화학 부문(SK어드밴스드 PDH) 자체 수요, 울산 항만 인프라, 그리고 SK그룹 차원의 자금력이 자리합니다. 반면 E1은 LS 그룹 분가 이후 자체 자금으로 LPG 본업과 신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자본 효율성과 트레이딩 마진 관리가 점유율 유지의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 2-2. SK가스의 LNG·수소 포트폴리오 전환

SK가스는 1조 4,120억 원을 투자해 1.2GW급 세계 최초 LNG·LPG 겸용 가스복합발전소 울산GPS를 2024년 12월 상업 가동하였고, 한국석유공사와 합작한 KET(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2024년 11월 준공되며 LNG 도입부터 저장·공급·발전까지 가치사슬을 완성하였습니다. 울산GPS는 LNG와 LP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가스 가격이 급등할 때 더 저렴한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

합니다.

2026년 4월 SK가스는 울산GPS 지분 49%를 스틱한투인프라에 약 1조 2,000억 원에 매각하여 재무 부담을 낮추었고, 동시에 SK어드밴스드(연 60만 톤 프로필렌, PDH) 지분을 사우디 APC와 쿠웨이트 PIC로부터 매입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가속화하였습니다. SK가스의 비전은 'Net Zero Solution Provider'이며, 2035년경 수소 혼소(최대 30%)를 시작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정수소 분야에서 SK가스는 ADNOC-KNOC와 블루수소 조인트스터디, 호주산 그린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롯데와 부생수소 활용 연료전지 발전(연 50만 MWh)을 추진 중입니다. LPG 본업의 안정 캐시플로를 LNG 발전과 수소·암모니아로 재투자하는 가치사슬 통합형 모델이 SK가스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 2-3. E1의 LPG·LNG·수소 후발 추격 전략

E1은 SK가스 대비 LNG 진출이 다소 늦은 후발주자이지만, 2024년 6월 평택에너지서비스 지분 100%를 5,770억 원에 인수(공시일 6월 14일, 인수일 9월 30일)하며 833MW급 평택 LNG 복합화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여수그린에너지(495MW LNG 집단에너지 SP)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LNG 발전 사업의 두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평택 발전소는 2013년부터 상업 운전 중이며 4년 평균 영업이익 약 680억 원의 안정 캐시플로를 제공하고, 여수그린에너지는 7,500억~1조 원 규모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로 추정됩니다. 두 발전소 합산 용량은 1,328MW로, GW급 발전 자산을 보유한 종합에너지 사업자로의 전환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문에서는 2024년 12월 E1 Gas Vietnam을 인수하였고, 베트남 박티엔펑 산업단지에서는 8만 톤 규모(프로판 5만 톤·부탄 3만 톤) LPG 냉동탱크터미널을 건설하여 연간 100만 톤 이상의 LPG를 공급한다는 '세컨드 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의 채무보증은 자기자본 16.99%에 해당하는 1조 5,103억 원 규모이며, 단일 해외 프로젝트로는 회사 사상 최대 규모의 자본 투입입니다.

### 2-4. 정유 4사의 LPG 사업과 구조적 한계

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는 정제 부산물로 LPG를 생산하지만, 2022년 기준 자체 수입 비중은 25.1%로 SK가스·E1의 74.9%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유사는 정제 마진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에 LPG는 부산물로 처리되고, 동절기 부족분은 SK가스·E1으로부터 사 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충전소 풀사인 경쟁에서 정유사 풀사인 충전소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구조적 불리함이 발생합니다.

2023년 LPG 충전소 판매량 상위 10개 가운데 SK가스 풀사인 6곳, E1·S-Oil 각 2곳으로 양강의 우위가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정유 4사 가운데서는 S-Oil이 PDH 신증설과 충전소 자영망 확대를 통해 LPG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SK가스·E1의 수입 인프라(여수·인천·울산·평택 LPG 터미널)와 트레이딩 역량 격차를 단기에 메우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 2-5. E1의 차별화 - 트레이딩·LS그룹 시너지·자영 충전망

E1의 차별화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사와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 3개 해외지사 기반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입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LPG 수출은 480만 1,000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톤으로 전년 대비 14.4% 늘어났으며, 일본·중국·베트남·대만 등 동북아 중계무역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LS그룹 시너지입니다. LS이링크와 50:50 합작으로 EV 충전 사업에 진출하였고, 자회사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임대·LS증권 다각화 매출이 그룹 차원의 안정성을 보강합니다. 셋째, 여수·인천·대산 3대 LPG 저장기지(여수 연 160만 톤, 인천 연 200만 톤 처리능력)와 380여 개 충전소 네트워크입니다. 넷째, 여수기지 무재해 40년(민간 에너지 업계 최장) 기록으로 대표되는 안전 운영 노하우입니다. 다섯째, '오렌지카드'·'오렌즈 플러스' 복합충전소 브랜드와 유튜브 '오렌지테레비' 구독 10만 돌파로 입증된 B2C 마케팅 역량입니다.

특히 트레이딩 역량은 SK가스 대비 차별화의 핵심입니다. SK가스가 자체 PDH 수요(SK어드밴스드)와 울산GPS 발전 연료로 LPG 도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자가 소화하는 반면, E1은 도입 물량을 최대화 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시장에 중계 매도해 트레이딩 마진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카고 1척 단위 손익이 그대로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해외영업 담당자의 협상력이 회사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2-6.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흐름

2026년 1월 SK가스·E1 노조가 31년 연속 임금 무교섭 위임을 이어갔습니다. 구자용 회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고환율·저성장 장기화로 더욱 도전적인 한 해"임을 진단하면서, "임직원 일치단결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의 기회"라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31년 연속 무교섭 위임이라는 노경 파트너십은 한국 대기업 가운데서도 흔치 않은 사례이며, 그룹 분가 직후부터 이어진 분기별 캔미팅과 사내 이메일 소통의 누적 결과로 평가할 만합니다.

2026년 3월에는 구자용 회장이 한국발명진흥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같은 시기 E1은 SK에코플랜트의 태양광 자회사 '탐선' 지분 19.68%와 CB(전환사채)를 약 1,300억 원에 인수하며 신재생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탐선은 국내 태양광 EPC·운영 분야에서 상위권 업체로, E1이 사실상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향후 충전소 부지·LNG 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PV 결합 모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편 SK가스의 울산GPS 지분 매각은 양사 자본 효율화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며, 향후 E1도 평택·여수 발전 자산의 일부 지분을 인프라 펀드에 매각해 자본 회수와 신사업 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E1의 면접 활용 포인트를 정리하면, "SK가스가 LNG에서 한 걸음 빠르는데 E1은 어떻게 따라잡는가"라는 질문에 정량 답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평택 833MW + 여수 495MW = 1,328MW 발전 자산 확보, SK가스의 단일 수직 통합형 모델 대비 베트남 세컨드 홈·LS이링크·탐선 등 분산 다각화형 리스크 관리, 트레이딩 측면의 LPG 중계수출 물량 확대(2024년 3분기 누적 +14.4%)와 3개 해외지사 체제의 운영 효율화로 차별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갖추어 두면 도메인 이해도가 강화됩니다.

---

##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 3-1. 사업 구조 - LPG 본업과 다각화 부문의 결합

E1의 매출 구성은 전통적으로 LPG 유통 약 90%, 자회사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임대·러시아 글로벌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상사)와 기타 약 10%였으나, 2024년 평택에너지엔파워와 LS증권 편입으로 가스(LPG)·전력(LNG 발전)·비금융(LS네트웍스)·금융(LS증권·베스트도yota) 4가지 부문으로 재편되었습니다.

LPG 사업 내에서는 도입(중동 장기계약 + 미국 셰일 + 호주·말레이시아 스팟)·저장(여수·인천·대산)·트레이딩(중계무역, 일본·중국·베트남·대만 수출)·도매(충전소·산업체·석화)·소매(가정상업용·자동차) 가치사슬 전반을 회사가 운영합니다. 한국 수입사 가운데 SK가스와 함께 가치사슬 통합도가 가장 높은 모델이며, 도입 단계의 협상력이 도매·소매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전력 부문은 평택 LNG 833MW와 여수그린에너지 495MW를 양대 거점으로 하며, 추가 가스터빈 도입과 수소 혼소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비금융 부문은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스포츠 브랜드)·임대·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러시아 글로벌상사로 구성되며, 그룹 모기업으로서 안정 매출원을 제공합니다. 금융 부문은 2024년 편입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일본 도요타 자동차 수입판매를 영위하는 베스트도yota가 핵심입니다.

### 3-2. 최근 실적 추이와 손익 변동의 의미

연결기준 매출은 2019년 4조 6,083억 원에서 2023년 7조 8,277억 원, 2024년 11조 1,924억 원으로 5년간 143% 급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9년 1,063억 원에서 2024년 2,176억 원으로 104.7% 늘어났습니다. 2024년 별도 매출은 8조 9,891억 원입니다.

다만 2024년 당기순이익은 658억 원으로 2023년 2,143억 원 대비 69.3% 줄어들었는데, 이는 2023년 인식한 헷지용 LPG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2024년 손실로 전환된 영향입니다. 영업단의 본업 수익은 양호하지만, 가격 변동 헷지 차원에서 보유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보고 시점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당기순이익 변동성을 키운 것입니다. 이는 LPG 트레이딩 비즈니스의 본질적 특성이며, 헷지 정책의 정교함이 영업 성과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2조 7,658억 원(전년 동기 +12.5%), 영업이익 1,052억 원(-9.9%), 당기순이익 636억 원(+196.8%)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고, 2025년 3분기 매출은 2조 4,000억 원(-13.1%)이지만 영업이익은 909억 원(+1,124.1%)으로 늘어났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 -9.3%·영업이익 +37.1%·당기순이익 +1.8%로 정리할 수 있는데, LPG 가격 약세에 따른 외형 둔화를 비용 효율화와 발전 사업 신규 매출 편입으로 상쇄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증권가 전망은 우호적입니다. 하나증권은 2025년 매출 13조 7,000억 원(+22.4%)·영업이익 2,455억 원(+12.8%)을 전망하였고, LS증권은 11월 26일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의견을 유지하였습니다. 평택 LNG 발전 가동의 풀(full) 효과가 2025년 하반기부터 손익에 반영되면서, LPG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종합에너지 사업자로의 전환 효과가 가시화된다는 분석에 근거합니다.

### 3-3. 인프라 - 여수·인천·대산 3대 저장기지

E1은 1984년 시작된 여수기지(연 160만 톤 처리능력, 우리나라 최초 지하 암반 LPG 저장시설)를 비롯해 인천기지(연 200만 톤 처리능력), 대산기지를 운영하며 국내 LPG 수입량의 약 50%를 공급합니다. 여수기지는 항만 깊이가 깊어 VLGC 입항이 가능한 국내 손꼽히는 LPG 인수기지이며, 동남권·호남권·석유화학단지 수요에 대응합니다. 인천기지는 수도권·중부권 수요와 연계되며, 대산기지는 충남 석유화학단지의 PDH 원료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인천 남항에 2007년 준공된 E1컨테이너터미널(3,000TEU급 1선석, 야적장 10만 2,300m<sup>2</sup>)은 LPG 인수기지 이전 후 잔여 부지 활용 사례로, 710억 원을 투자해 다각화에 성공한 모델입니다. 자회사 E1 America LLC(휴스턴, 출자 500억 원)는 북미 셰일 신사업 교두보 역할을 맡으며, 미국 수출터미널과 가까운 입지에서 카고 노미네이션·차터 협상·운영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베트남 박티엔핑 산업단지의 8만 톤 LPG 냉동탱크터미널은 한국 수입사로서는 첫 동남아 자체 터미널 인프라이며, 베트남 LPG 시장의 빠른 성장(연 6~8% 수요 증가)을 본업의 도매·소매 채널로 흡수하는 그림입니다. 베트남 시장은 LPG 가정·상업·자동차·산업용 수요가 모두 늘어나고 있어, 한국에서 정제기에 들어선 부탄 수요를 베트남으로 옮겨 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4. 충전소·복합충전 인프라

E1은 전국 380여 개 LPG 충전소(직영 + 자영)를 운영하며, 2021년 11월 출시한 미래형 복합충전소 브랜드 'E1 오렌즈 플러스(Orange Plus)'와 수도권(고양·강서·과천 등) LPG·수소·전기 복합충전소(시간당 수소차 6대 이상 연속 충전 가능), 2024년 4월 출시한 모바일 세차 플랫폼 '티티워시'를 운영합니다.

오렌즈 플러스는 LPG 충전소를 LPG·수소·전기 통합 에너지 허브로 재정의한 모델이며, 단일 부지에서 다중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지 효율을 높이고 향후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소 충전 기능은 한국가스공사·하이넷 등과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시간당 수소차 6대 이상 연속 충전 능력은 국내 수소 충전소 가운데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2022년 LS그룹 지주사 (주)LS와 50:50 합작으로 설립한 LS이링크(LS E-Link)는 대형 운수 B2B 고객 중심 EV 충전 사업을 영위하며, LS그룹의 산업용 전력·전선 인프라와 결합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23년 7월 지분 51%를 인수한 SE모빌리티는 천연가스버스·전기버스 충전소를 운영하며, B2B 운수 사업자 대상 멀티 에너지 충전 인프라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 3-5. 친환경·자원개발·트레이딩 신사업

신재생에너지 영역에서 E1은 2020년 6월 8MW급 강원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자회사 넥스포에너지·넥스포솔라(태양광 운영), 영월에코윈드(풍력) 지분 29% 보유, 2026년 SK에코플랜트의 태양광 자회사 탑선 지분 19.68% + CB 약 1,300억 원 인수로 사실상 최대주주에 올라섰습니다. 탑선 인수는 단일 신재생 투자 가운데 회사 사상 최대 규모이며, 향후 평택·여수 LNG 발전소 부지 인근의 PV 결합 모델, LPG 충전소 지붕형 태양광 등 다양한 시너지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한국남부발전과 청정수소 전주기 사업개발 MOU(신인천 복합 150MW 가스터빈 50% 혼소용 수소 공급), 액화수소·암모니아 도입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소 분야에서 E1의 강점은 LPG 트레이딩 인프라(중동·미국 수입선, 글로벌 트레이더 네트워크, 해상운송 노하우)를 그대로 암모니아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모니아는 그린수소를 운반하기 위한 매체(carrier)로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며, LPG 트레이더가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베트남 'YEN HUNG PETROCHEMICAL JOINT STOCK COMPANY' 합작은 자기자본 16.99%에 해당하는 1조 5,103억 원의 채무보증을 동반하며 상업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자원개발 측면에서는 호주·동남아 LPG 광구·터미널 지분 투자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며, 그룹 모기업의 글로벌상사 사업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과 결합해 자원-가공-유통 가치사슬을 보강하는 흐름입니다.

### 3-6. 경영진 메시지 - 구자용 회장의 소통경영과 LNG 승부수

구자용 회장(1955년생, 고려대 무역학과, LG전자 미주법인장 출신, 구평회 명예회장 차남)은 분기마다 전 직원 경영현황 설명회와 캔미팅을 운영하고 사내 이메일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경영을 통해 1996년부터 31년 연속 임금 무교섭 위임이라는 노경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캔미팅은 음료 캔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답변을 주고받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자리이며, 임원과 신입사원이 같은 자리에서 회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구자용 회장은 "LPG 산업의 안정적 수익에도 국내 수요 감소·해외 트레이딩 경쟁 심화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아시아 개도국 세컨드 홈, 태양광·풍력, 수소 가치사슬, 전기차 충전, LNG 발전이 미래 성장 다섯 영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의 다각화 방향을 임원·직원에게 공식 제시한 메시지이며, 신입 채용 단계에서도 이 다섯 영역에 대한 이해가 도메인 적합성의 기본 자격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신년사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고환율·저성장 장기화"를 도전 과제로 짚었고, 2026년 3월에는 한국발명진흥회 21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LG·LS가의 발명·지식재산 리더십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구자용 회장의 미주법인장 경험은 E1의 미국 셰일가스 LPG 도입과 휴스턴 지사 설립의 지적 토대가 되었으며, 회사 차원의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보강하는 자산입니다.

### 3-7.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요인

E1은 코스피 상장(017940)으로 2024년 별도 자기자본은 약 1조 5,103억 원이며, 2024년 주당 3,000원의 현금배당(시가배당률 4.5%, 총 173억 4,525만 원)으로 주주환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ER은 6.2~8.8배, PBR 0.21배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전통 연료 산업 디스카운트가 적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주요 리스크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CP·환율·VLGC 운임의 동시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손익 변동성입니다. 2024년 헷지 평가이익이 손실로 전환되면서 순이익이 69% 줄어든 사례가 보여주듯, 헷지 회계의 시점 차이는 매년 손익을 흔드는 변수입니다. 둘째, 정부 물가안정 압박으로 원가 인상분의 즉각 반영이 제약될 때 마진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부탄 수요 감소 가능성입니다. 넷째, LNG 발전·수소 신사업의 자본투자 회수 지연 리스크입니다. 다섯째, 베트남 사업 PF 채무보증 노출 1조 5,103억 원에 따른 해외 신사업 리스크입니다.

종합하면, E1의 면접 활용 포인트는 "매출 다각화가 LPG 트레이딩 본업과의 시너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택·여수 LNG는 수요 증가 시 LPG 백업이 가능하고, 베트남 터미널은 본사 트레이딩 물량 추가 확보의 출구가 되며, 탐선·LS이링크는 LPG 충전 부지의 멀티 유즈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회사 이해도의 출발점입니다.

---

## 4장: 인재상/조직문화

### 4-1. 공식 인재상 - '주도적인 도전·전문성·실행력·동반성장'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E1은 비전 'Energy Leader, Life Partner' 아래 핵심가치를 주도적인 도전, 전문성, 실행력, 동반성장으로 제시합니다. 채용 메시지에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전문성,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실행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회사 LS네트웍스가 'SOUND people'(책임·소통·열정·창의·실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과 LS그룹의 그룹 차원 가치체계(소통·책임·열정·창의)와 결을 같이합니다.

핵심가치를 LPG 트레이딩 도메인에 적용해 보면, 주도적인 도전은 새로운 도입선·트레이딩 카운터파트 발굴, 전문성은 4대 벤치마크 가격·환율·운임을 함께 보는 시황 분석력, 실행력은 카고 1척 단위의 실시간 의사결정과 협상 마무리, 동반성장은 산유국 NOC·글로벌 트레이더·국내 고객사와의 장기 파트너십 구축을 의미합니다. 추상적인 가치 선언이 아니라 일상 업무의 행동 원칙으로 작동하는 핵심가치입니다.

### 4-2. 조직문화 - '소통의 캔미팅·31년 무교섭·무재해 40년'

E1 조직문화의 객관적 지표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1996년부터 2026년까지 31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위임은 한국 대기업 가운데 최장 기록이며, 분기 전 직원 경영현황 설명회와 캔미팅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여수기지 무재해 40년은 2024년 3월 달성한 민간 에너지 업계 최장 기록으로, LPG 인수기지의 안전 운영 노하우가 회사 전체 문화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본사는 LS용산타워(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에 위치하며, 여수·인천·대산 사업장과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베트남(하노이·하이퐁) 해외 거점이 있습니다. 신입 채용 후 본사·지방사업장·해외지사 간 순환근무가 적용되며, 비전내재화팀 등 조직문화 전담 조직이 운영됩니다. 2024년 인턴 처우는 6주 350만 원 + 행복충전비로, 동종 업계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잡플래닛·블라인드 등 후기 기반 추론에서는 야근 강도가 비교적 낮고 정년 안정성이 높으나, 신입 채용 후 본사·지방사업장·해외지사 간 순환근무가 적용된다는 평이 일관됩니다. 정유사·종합상사 대비 회사 규모는 작지만 평균 연봉(별도 기준 약 1억 2,046만 원)은 동종 LPG 수입사 양강의 산업 내 상위 수준이며, 트레이딩 직무 특성상 인당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 4-3. LPG 트레이딩·해외영업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LPG 트레이딩·국제영업 도메인은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딩의 한 분야로, 다음과 같은 역량 묶음을 일반적으로 선호합니다.

첫째, 글로벌 시황 분석력입니다. Saudi CP·FEI·Mont Belvieu·NWE ARA 4대 벤치마크 사이의 스프레드를 모니터링하고, EIA·IEA·Argus·Platts·OPIS·Mordor Intelligence·WLPGA 보고서를 정독하면서 시장 흐름을 종합하는 역량입니다. 매주 EIA 주간 재고 발표(미 동부 시각 매주 수요일), 매월 OPEC MOMR(월간 보고서), 분기 IEA Oil Market Report를 소화하면서 자기 견해를 다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둘째, 영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산유국 NOC, 글로벌 트레이더, 선사, 검수업체와의 일상 협상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이메일·전화·화상회의·대면 출장이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E1 채용공고에서도 "어학능력 우수자 우대"를 명시하며,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 해외지사 파견을 위한 기본 자격은 비즈니스 영어 구사력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셋째, 가격 변동성-리스크 관리 마인드셋입니다. 파생상품(스왑·옵션) 헷지, 환율 헷지, 외상매입금 결제 시점 차이의 환차손익 관리가 일상 업무에 포함됩니다. 헷지 비율이 너무 높으면 시황이 유리할 때 기회 이익을 놓치고, 너무 낮으면 시황이 불리할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넷째, 장기 거래 관계 구축 역량입니다. 사우디·UAE NOC와의 텀(term) 계약은 수년 단위로 갱신되며, 협상 자리에서의 신뢰 자본이 단기 가격 협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산유국 측 카운터파트는 통상 10~20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으므로, 한국 측 담당자도 가급적 장기간 같은 라인에서 일하면서 관계를 누적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다섯째, 숫자 감각·계약 협상력입니다. Incoterms(FOB·CFR·CIF), L/C, 도착도·이탈도(landed cost), 유효 운임지수 해석은 모두 숫자에 기반한 의사결정입니다. 카고 1척 4만 4,000톤에 톤당 1달러를 두고 싸우면 4만 4,000달러, 약 6,000만 원의 손익이 좌우되는 만큼 작은 숫자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여섯째, 시차 대응·출장 적응력입니다. 휴스턴(서울-15시간), 싱가포르(서울-1시간), 두바이(서울-5시간) 3개 거점과의 24시간 콜 체인이 존재하며, 산유국·트레이더 미팅을 위한 해외 출장이 분기 1~2회 빈도로 발생합니다. 시차에 따른 컨디션 관리, 라마단 등 현지 문화 일정에 대한 이해가 협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4-4. 해외영업 도메인 적합성을 보여주는 행동지표

E1 합격자 사례와 회사 메시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행동지표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첫째, 세일가스·중동 정제·달러환율 등 거시변수 학습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뉴스레터를 읽고 자기 견해를 정리하는 루틴이 도메인 진입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매일 업무 리스트 작성 등 체계적 계획역량입니다. 트레이딩 업무는 카고 노미네이션·계약 갱신·선적 일정·결제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작업 흐름의 우선순위 관리가 일상 성과에 결정적입니다.

셋째, EIA·IEA 데이터·전문가 분석을 비교 교차검증하는 분석적 사고입니다. 한 출처의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자기 결론을 만들어 가는 사고 습관이 시황 분석의 토대입니다.

넷째, 환율·선물·파생상품 등 금융 도구 학습 의지입니다. 무역 회사 재무 부서·금융권 입사자와 다른 점은, 트레이딩 담당자가 자기 거래의 손익을 본인이 헷지·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 단위 파생상품 강의 수강, CFA 1차 학습, Bloomberg Market Concepts(BMC) 인증 등이 가시적인 학습 성과로 활용됩니다.

다섯째, 신문·뉴스레터 등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영문기자·해외 인턴·교환학생·국제기구 인턴 경험이 합격자 풀에서 자주 보이는 배경입니다.

여섯째, 협상·세일즈 경험에서의 꾸준한 멘트 연습·고객 응대 같은 디테일한 노력입니다. 카고 협상은 결국 사람 사이의 합의이며, 영문 이메일 한 줄, 전화 한 통의 톤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LS그룹 차원의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코드(희망충전캠페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후원 매년 1억 5백만 원, ESG 친환경 신사업)와 결이 맞는 가치관도 도메인 적합성의 한 부분으로 작동합니다. LPG 트레이딩이 글로벌 비즈니스이지만 동시에 국내 가정·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공급의 사회 인프라이기도 하다는 균형 감각이 회사 문화에 내재해 있습니다.

### 4-5. 후보 풀 분석 - 학력·전공·어학·처우

채용 자격은 4년제 대졸 또는 2026년 2월 이내 졸업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음, 전공 무관으로 폭넓습니다. 어학은 토익 등 점수 제한은 없으나 우수자 우대입니다. 캐치·인크루트 등 채용정보에 따르면 E1 평균 연봉은 약 1억 2,046만 원(별도,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332명 인원 추산), 신입 초봉 7,000만 원대(블라인드 추정), 인턴 처우 6주 350만 원으로 LPG 수입사 양강의 산업 내 상위권 보상 수준입니다.

해외영업 직무 적합 인재를 본사 또는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 해외지사로 배치될 수 있는 트랙이 명시되어 있으며, 입사 후 3~5년차에 해외지사 파견 기회가 일반적으로 열립니다. 해외지사 파견 시에는 별도의 주거 지원·자녀 교육비·체재비가 지원되며, 산유국·트레이더 카운터파트와의 장기 관계 구축을 위해 한 거점에 3~5년 이상 머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공 무관이라는 자격은 LPG 트레이딩 도메인이 학부 전공 지식보다는 입사 후 학습 의지·시황 감각·언어 역량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경제·국제통상·무역학 전공자가 다수이지만 공학·자연과학 전공자도 도메인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Python·SQL 역량을 갖춘 후보의 가산점이 점차 커지는 흐름입니다.

종합하면, 인재상 영역의 핵심은 "E1이 원하는 인재상이 LPG 트레이딩 도메인이 요구하는 본질적 역량과 일치한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시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가격 변동성 속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 신뢰를 구축하는 사람이라는 한 줄 메시지가 도메인 적합성의 출발점입니다.

---

## 5장: 직무 분석

### 5-1. 조직 구조 - 해외영업 부문과 트레이딩 부문의 이원화

E1은 해외사업본부를 트레이딩 부문(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 3개 해외지사 + 본사 글로벌 오퍼레이션 팀)과 해외영업 부문(본사 트레이딩 개발팀 + RM(Risk Management) 파트)으로 이원화 운영합니다. 트레이딩 부문은 LPG 매매·중계무역·차익거래·운송 최적화를 수행하며, 해외영업 부문은 신규 거래선 발굴·시황 분석 보고·헷지 정책 수립·계약 협상을 담당합니다.

신입 해외영업 직무는 본사 배치 이후 직무 적합성 평가에 따라 해외지사 파견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본사 배치 단계에서는 글로벌 오퍼레이션팀, 트레이딩 개발팀, RM팀 가운데 한 부서로 우선 배치되어 1~3년의 도메인 적응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본사·해외지사 간 순환근무를 통해 도입(중동·미국)·운영(VLGC·터미널)·매도(국내 도매·해외 중계) 가치사슬 전반을 본인의 경험으로 익힙니다.

부서 사이의 협업 흐름을 보면, 트레이딩 개발팀이 신규 매수자·매도자 풀을 확장하면서 카고 매칭의 후보군을 늘리고, 글로벌 오퍼레이션팀이 카고 노미네이션·차터·검수·결제를 운영하며, RM팀이 헷지 비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울·VAR 한도·환율 헷지를 모니터링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그러나 카고 1척 단위의 의사결정은 부서 간 실시간 협업이 필수이며, 전형적인 트레이딩 부서 환경답게 부서 사이의 정보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 5-2. 일·주 단위 핵심 업무

일 단위 업무를 시간대별로 풀어 보면, 출근 직후에는 전일 야간 미국 Mont Belvieu·NWE ARA 증가를 확인합니다. 미국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마감하므로, 한국 출근 시점에 미국 증가가 새로 들어옵니다. 이어 아시아 시간대 FEI 페이퍼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아침 9시 이전에 일일 시황 메모를 정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Argus·Platts·OPIS 일간 리포트를 정독하면서 산유국 발표·OPEC 회의·중동 정세·홍해 사태·중국 PDH 가동률 등 시장 영향 요인을 정리합니다.

오전에는 휴스턴 지사와의 콜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스턴은 서울 기준 -15시간이므로, 한국 오전 9시는 휴스턴 전일 오후 6시입니다. 이 시점에 휴스턴 지사 담당자와 미국 카고 진행 상황·차터 협상·미국 미드스트림 사업자 미팅 결과를 공유합니다. 오후에는 두바이 지사와의 콜이 잡힙니다. 두바이는 서울 기준 -5시간이므로 한국 오후 2시는 두바이 오전 9시이고, 산유국 NOC와의 협상 결과·중동 정세·CP 발표 전 시그널을 공유합니다.

운송선사·검수업체·보험사와의 진행 카고 상태 점검도 일과 안에 포함됩니다. Bloomberg·Refinitiv 단말로 환율·유가·VLGC 운임을 분 단위로 확인하면서, 시황 변동이 자기 보유 카고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주 단위 업무는 시황 보고서 작성에 일정한 시간을 할당합니다.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 임원 회람용 1~2장 메모를 발행하는데, 전주 4대 벤치마크 가격 변동, 주요 이벤트(OPEC+ 회의·이란 제재·홍해 사태·중국 PDH 가동률), 익주 전망, E1 도입·판매 영향 시뮬레이션을 정리합니다. EIA 주간 재고 발표(미 동부 시각 매주 수요일) 분석도 주 단위 핵심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 카고 노미네이션 일정 조율, 헷지 포지션 마크-투-마켓 점검, 신규 거래선 콜드콜·미팅 셋업도 주 단위로 누적되며, 분기 단위 신규 거래선 평가에 반영됩니다.

### 5-3. 월·분기·연 단위 핵심 업무

월 단위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사우디 아람코 익월 CP 예측과 발표 후 즉시 국내 공급가 시뮬레이션입니다. 매월 말 발표되는 CP는 익월 한국 LPG 도매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회사 차원의 가격 정책 의사결정의 기준점입니다.

텀(term) 카고 1~2척 도입 일정 협상도 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VLGC 1척이 약 4만 4,000톤이며 라스타누라(사우디)에서 여수까지 약 18~21일 항해, 라스타누라에서 인천까지 약 19~22일 항해가 표준 일정입니다. 스팟 카고 차익거래 의사결정(arb 오픈/클로즈)도 월 단위로 누적되며, 월간 손익 마감과 파생 결산이 월말에 진행됩니다. 중계무역(중국·일본·베트남·대만) 인보이스 발행,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 결제 일정 관리도 함께 진행됩니다.

분기 단위 업무는 분기 트레이딩 손익 보고, 헷지 비율 재조정, 신규 거래선 분기 평가, 본사 분기 경영현황 설명회 참여, 산유국 NOC IR 미팅이 핵심입니다. 분기마다 임원진 앞에서 분기 손익을 설명하고, 다음 분기의 시장 전망과 헷지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연 단위 업무로는 사우디·UAE NOC 연간 텀 계약 갱신(통상 1년 단위)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연간 텀 계약은 다음 1년의 공급량·가격공식·운송조건을 결정하는 협상으로, 회사 도입 비용 구조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연간 도입 계획 수립(중동 vs 미국 비중, 프로판 vs 부탄 비중), 연간 헷지 정책 수립, 신규 시장 진출 검토(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산업 콘퍼런스 참가(World LPG Forum, AIPGS 등), 사업계획·예산 수립이 연간 업무 캘린더를 채웁니다.

### 5-4.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내부 협업 부서로는 트레이딩팀, 운영팀(선박·터미널 스케줄링), 재무팀(외환 결제·자금), 법무팀(계약·분쟁), 리스크관리팀(VAR·헷지 한도), 본사 임원(경영진 의사결정), 국내영업팀(국내 수급 정보 공유)이 있습니다. 카고 1척 단위의 의사결정은 이들 부서가 동시에 관여하며, 신입 해외영업 담당자는 첫 1~2년 동안 부서 간 정보 흐름과 협업 흐름을 익히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유국 NOC로는 Saudi Aramco, ADNOC(UAE), KPC(쿠웨이트), Qatargas, Iraq Oil Marketing(SOMO)가 핵심입니다. 미국 미드스트림·터미널로는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Targa Resources, ONEOK(2025년 2월 텍사스시티 일 40만 배럴 수출터미널 계약 발표)가 주요 카운터파트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로는 Vitol, Trafigura, Glencore, Petredec, Geogas, Naftomar, Mercuria 등이 있습니다.

VLGC 선주로는 BW LPG(53척, 22척 듀얼퓨얼), Dorian LPG, Avance Gas, KSS해운(16척), 현대글로비스(태백·소백 익스플로러)가 주요 협상 상대입니다. 검수업체(SGS, Inspectorate)·해상보험사·은행(L/C 발행)·로펌과의 일상적 거래도 포함됩니다. 국내 정책·협회 차원에서는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다는 점은 해외영업 직무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빠르게 누적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5~10년 차에 이르면 본인의 산유국·트레이더 인적 네트워크가 회사 자산이 되며, 평생 커리어의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 5-5. 필요 역량 매트릭스

언어 영역에서는 영어 비즈니스 협상(Speaking·Writing 모두)이 기본이며, 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일본·중국·베트남은 모두 E1의 중계무역 핵심 시장이며, 현지 카운터파트와의 모국어 소통이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량 영역에서는 Excel 모델링, Bloomberg·Refinitiv 단말 활용, 파생상품 가격 산정(Black-Scholes 기초), VAR(Value at Risk) 산정이 핵심입니다. Excel 모델링은 카고 손익 시뮬레이션, 환율·운임·CP 시나리오 분석에 일상으로 쓰입니다.

무역 실무 영역에서는 Incoterms 2020(FOB·CFR·CIF·DAP), L/C(UCP 600), B/L, COA(Cargo of Analysis), Demurrage(체선료) 정산 지식이 기본기입니다. 카고 협상의 일정 부분은 이러한 무역 실무 조항을 둘러싼 의견 차이 조정으로 채워집니다.

시장 분석 영역에서는 EIA·IEA·Argus·Platts·OPIS·Mordor Intelligence·WLPGA·Wood Mackenzie 보고서 활용이 일상입니다. 협상 영역에서는 NOC 장기계약, 트레이더 스팟 거래, 선사 운임 협상의 세 가지 협상 유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데이터 분석(Python·SQL 가산), 사내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ERP·트레이딩 시스템 활용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5-6. 추정 KPI와 평가 포인트

해외영업 신입~주니어 단계의 KPI는 일반적으로 도입 단가 하향 폭(벤치마크 대비 톤당 달러 기준 축소량), 트레이딩 마진(스팟 카고 gross margin), 신규 거래선 수, 헷지 효율성(가격 변동 대비 손익 변동 축소율), 운송비 최적화(VLGC 차터 협상 결과), 시황 보고서 품질(임원 활용도)로 구성됩니다.

E1 별도 영업이익률이 LPG 사업 특성상 2~3% 수준임을 고려하면, 도입 단가를 톤당 1달러만 낮추어도 연간 수십억 원 단위의 이익 영향이 발생합니다. 정밀한 협상력이 핵심 평가 지표가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외지사 파견 기회·처우가 결정되는 흐름입니다.

평가 포인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단기적으로는 카고 1척 단위 손익이 평가 자료가 됩니다. 카고 매수가, 매도가, 운임, 환율, 헷지 비용을 모두 더한 net margin이 트레이딩 마진의 표준 지표이며, 분기 단위로 누적해 평가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신규 거래선 풀의 확장, 산유국 NOC와의 텀 계약 조건 개선, VLGC 차터 갱신 협상 결과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의 폭, 신규 시장 진출 기여, 후배 양성 기여가 핵심 평가 자산이 됩니다.

### 5-7. 대표 업무 시나리오 - 텀·스팟·시황 보고서

시나리오 A는 월간 텀 카고 도입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CP 발표(월말) 이후 익월 도입 카고 노미네이션을 시작합니다. 약 4만 4,000톤 VLGC 1척, 사우디 라스타누라에서 여수까지 약 3주 항해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VLGC 차터를 확정합니다(Baltic LPG Index 기준). 검수업체를 선임하고, L/C를 개설하며, 항차 진행을 모니터링합니다. 도착 후 검수·하역(여수 또는 인천 기지)을 진행하고, 결제 및 손익 마감으로 마무리합니다. 한 사이클이 약 4~6주 동안 진행되며, 같은 시점에 다음 달 카고 노미네이션이 또 시작되므로 사이클이 겹쳐서 흘러갑니다.

시나리오 B는 스팟 차익거래입니다. FEI 페이퍼 가격이 Mont Belvieu + 운임 + 터미널비를 충분히 상회하는 'arb open' 시그널을 포착합니다. 휴스턴 지사가 미국 공급사로부터 스팟 카고를 구매하고, 본사가 일본·중국·베트남 매수자에게 매도 협상을 진행합니다. 운임 차터(파나마운하 통과 vs 우회) 결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FEI 스왑으로 가격을 록 인(lock-in)합니다. 카고 도착 후 마진을 확정합니다. 차익거래는 시황 변동에 따라 며칠 안에 윈도우가 닫힐 수 있어, 의사결정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나리오 C는 시황 보고서 작성입니다. 매주 화요일까지 전주 4대 벤치마크 가격 변동, 주요 이벤트(OPEC+ 회의·이란 제재·홍해 사태·중국 PDH 가동률), 익주 전망, E1 도입·판매 영향 시뮬레이션을 정리해 임원 회람용 1~2장 메모로 발행합니다. 분기 1회는 향후 12개월 연간 시황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는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시황 보고서 작성 능력은 글로벌 시황 분석력의 가시적 산출물이며, 임원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종합하면, 직무 분석 영역의 핵심은 LPG 트레이딩 실무의 그림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VLGC 1척이 약 4만 4,000톤(또는 LPG 8만 6,000m<sup>3</sup>)이며 라스타누라-치바 라운드트립이 Baltic LPG Index 기준이라는 점, Saudi CP가 매월 말 발표되어 공급가에 즉시 반영된다는 점, Mont Belvieu가 미국 LST(Lone Star) 기준이고 EPC와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 FEI는 Argus가 발행하는 아시아 인도가격이라는 점 등 도메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E1 당기순이

## 심층 분석 보고서: E1-해외영업

---

익이 -69%로 급락한 이유는 LPG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시점 차이 때문"이라는 식으로 회사의 손익 구조와 헷지 메커니즘을 풀어낼 수 있다면 직무 이해도가 차별화됩니다.

---

###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E1 공식 홈페이지 (Life Energy E1)** — <https://www.e1.co.kr/ko/main>
2. **E1 LPG 사업 소개** — <https://www.e1.co.kr/ko/business/lpg/business>
3. **E1 자회사 LS네트웍스 소개** — <https://www.e1.co.kr/ko/company/subsidiaryIntroduction>
4. **E1(A017940) Snapshot — 기업정보 / Company Guide** — [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pGB=1&gicode=A017940&cID=&MenuYn=Y&ReportGB=B&NewMenuID=Y&stkGb=701](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pGB=1&gicode=A017940&cID=&MenuYn=Y&ReportGB=B&NewMenuID=Y&stkGb=701)
5. **E1 매출액 43%↑ 영업이익 133%↑ 순이익 69%↓** — 이투뉴스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28>
6. **E1, 5년 새 매출 143% 급증...LNG·신재생에너지 업고 '10조 클럽' 진입** — CEO스코어데일리 —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5043017074627173>
7. **[단독] E1, SK에코플랜트 '탐선' 지분 20% 인수...사실상 최대주주로** —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article/20024997>
8. **LNG 강화하는 E1...인수 이어 건설까지** — 아이뉴스24 — <https://www.inews24.com/view/1740859>
9. **LPG수입사 E1, 해외영업 기능 강화...조직개편 및 인사** — 투데이에너지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7>
10. **Liquefied Petroleum Gas Market Size — Grand View Research** —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liquefied-petroleum-gas-industry>
11. **Liquefied Petroleum Gas (LPG) Market Size and Share — Mordor Intelligence** — <https://www.mordorintelligence.com/industry-reports/liquefied-petroleum-gas-market>
12.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23** — <https://www.smf.com.sg/wp-content/uploads/2024/07/WLPGA-Statistical-Review-2023.pdf>
13. **U.S. LPG Exports: An Expanding Influence in Global Energy Markets — Enkon Energy Advisors** — <https://enkonenergy.com/u-s-lpg-exports-an-expanding-influence-in-global-energy-markets/>

14. **LPG Market Trends & Prices | Global Outlook for Dec 2025** — Argus Media —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market-opinion-and-analysis-blog/lpg-market-trends-december-2025>
15. **LPG Price Trends: Propane Market News & VLGC Rate Shifts** — Argus Media —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market-opinion-and-analysis-blog/lpg-price-february-update>
16. '쉽지 않은' LPG시장, 2024년 전망은? — 에너지신문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85>
17. [12월 국내 LPG 공급가] SK가스·E1, 결국 '동결' — 투데이에너지 —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91601>
18.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 — 국가지표체계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5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257)
19. LPG 신차 15만대 시대...LPG 1톤화물차·택시 쌍끌이 흥행 — 에너지플랫폼뉴스 —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0599>
20. **VLGC and LPG Markets: Growth and Future Projections for 2025** — Evident Capital — <https://www.evident.capital/blog/vlgc-and-lpg-markets-growth-and-future-projections-for-2025>
21. 이유 있는 가스선 최강자 "KSS해운" — 한국해운신문 —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54>
22. [해양통신] 美-中 휴전, VLGC '활력'...운임 급등·선박 수요 증가 — 오션프레스 — <https://www.oceanpress.co.kr/news/article.html?no=28212>
23. **Vitol** — Wikipedia — <https://en.wikipedia.org/wiki/Vitol>
24. **Global Liquefied Petroleum Gas (LPG) Market Report 2026** — IndexBox — <https://www.indexbox.io/store/world-liquefied-petroleum-gas-lpg-market-analysis-forecast-size-trends-and-insights/>
25. [르포] SK가스의 LNG밸류체인 전초기지 '울산GPS & KET' — 이투뉴스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320>
26. LNG 강화하는 E1...인수 이어 건설까지 — 다음 뉴스(파이낸셜뉴스 송고) — <https://v.daum.net/v/20240711150850752>
27. **E1** — 나무위키 (회사 연혁·자회사·인프라 종합) — <https://namu.wiki/w/E1>
28. LPG충전소 판매량 톱10...SK가스 6곳으로 가장 많아 — 가스신문 —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54>
29. [TOP CEO 337] 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 — 씨이오뉴스 —

<https://www.ceo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52>

30. **[Who Is ?]** 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 — 비즈니스포스트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1196](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1196)
31. **E1, 31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 — 이투데이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1775>
32. **구자용 E1 회장, 한국발명진흥회장 취임..."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힘쓸 것"** — 헤럴드경제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7766>
33. **E1 채용 2025년 기업정보** — 캐치(Catch) —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620025>
34. **E1, 베트남 LPG탱크터미널 사업 채무보증** — 에너지신문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19>
35. **[신년사] 구자용 E1 회장 "미래 지향적 노-경 관계 지속"** — EBN —  
<https://www.ebn.co.kr/news/view/967243>
36. **[E1] 2025년 채용연계형 하계인턴 채용** — 식소(SSGSAG) —  
<https://www.ssgsag.kr/posters/22668>
37. **E1 채용 | 2019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 해외영업/국내영업 (수퍼루키) —  
<https://www.superookie.com/jobs/5d65d4478b129f3d8505baaa>
38. **E1 채용 | 2020년 상반기 신입사원 해외영업/국내영업 (수퍼루키)** —  
<https://www.superookie.com/jobs/5e743ade8b129f585c4be471>
39. **2025년 (주)엘에스네트웍스 채용 기업정보** — 인크루트 —  
<https://www.incruit.com/company/1411243/>
40. **블라인드 | E1 채용** — 팀블라인드 —  
<https://www.teamblind.com/kr/company/E1/posts/E1%20%EC%B1%84%EC%9A%A9>